

때 아닌 '난민사태' 예멘인 486명... 대책은?

무사증 제도 악용 우려, 안전장치 시급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도민 불안 '여전'

수 백여 명의 예멘인들이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가운데 당국이 이들에 대한 인권지원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으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조치에 나선다고 6월 19일 밝혔다.

현재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들은 486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에 발발한 예멘내전으로 540명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에 입국, 일부는 귀국하거나 타 지역으로 출도(육지부 이동)한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486명의 예멘인들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

이들에게는 제주에 머무는 동안 기본적인 생계비가 지원된다. 난민 심사기간은 약 6~8개월 가량으로 이후 난민으로 인정되면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되며,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이 난민으로 인정 받고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도 함께 중단된다.

법무부에서는 도내 급증하는 예멘난민에

대해 지난 4월 30일 출도 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후 6월 1일자로 예멘난민 신청자들의 입국을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당국이 출도를 제한하자 난민신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해 공원이나 해변 등에서 노숙을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사증 제도 악용 우려, 안전장치 마련 시급

제주로 난민이 몰리기 시작한 건 유럽이 빗장을 닫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제주의 경우 무비자로 외국인도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은 모두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왔다.

무사증 제도는 관광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들어온 뒤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인은 지난 2015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이듬해인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불법취업의 통로 등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무비자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는 11~12개 가량 된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국제법적인 취지와 국내법적인 절차, 인도적인 정신에 입각해 출도를 제한하고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저희는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목적의 무사증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난민 사태 대책은?

그렇다면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주도청과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이들 난민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취업을 통한 제주적응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14일에는 27명, 18일에는 131명의 예멘인이 제주에서 취업했다.

제주자치도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과 함께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처음 맞이한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과 제주지방경찰청과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에 대한 수술 및 입원 등 긴급 구호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숙소를 구할 형편이 어려운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업 이후에도 주기적인 사업자 방문 등 사후 관리를 통해 도민 생활에 불안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숙소 주변과 주요 도로 및 유흥가 등을 중점적으로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백길홍 기자

경찰, 난민 범죄 발생 시 '코드1' 발령

제주경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범죄신고가 접수될 경우 긴급상황을 뜻하는 '코드1'을 발령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내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40명을 포함해 중국인 353명, 인도 99명, 파키스탄 14명, 기타 48명 등 총 1063명에 달한다.

그동안 예멘 난민과 관련한 112신고는 총 7건(응급환자 및 생활고 등)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범죄 신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민불안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난민 신청자들이 단체로 묵고 있는 숙소 및 주요 배회지 등을 중심

으로 112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주요 범죄 유형별 처벌 및 불이익, 경범죄 및 외국인범죄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난민 신청자들 스스로 한국의 법과 문화를 준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난민 관련 범죄가 접수되면 곧바로 코드1을 발령해 신속 대응하고, 강력범죄 발생시에는 지역경찰을 포함한 형사, 외사 등 관련 기능을 총력 대응해 공항만 차단 등 조기 검거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경찰은 "난민 신청자라는 이유로 불법체포 등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침해 방지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법집행

시 경찰 스스로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앞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예멘인들의 경우 자국이 전쟁과 같은 극단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 한국대사관의 접촉 없이 제3국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원정난민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난민을 보호하려는 국제난민법의 뜻을 무시한 탈법난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제도적 법 감시망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신분과 최근 행적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출신의 신분 불투명자들의 대거 입국은 우리의 치안을 한 층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진단했다.

또한 "비국민이 우리 영토에 쉽게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경계체계를 무너뜨리는 침해행위"라며 "정부는 주권국가의 질서와 경계태세를 든든히 하는 차원에서 불법난민의 입국을 근절하는 난민법 개정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5월 10일자로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꿨다"며 "이는 관리가 아닌 인권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난민대책도민연대는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과 미디어에 제주도 무사증제도의 피해를 널리 알리고, 관계당국의 성실한 이행 촉구를 위해 전화 및 항의방문, 평화적인 시위와 전단지 공유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제주대 교수 수년간 성희롱 등 갑질행위 '파문'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대위, 가해 교수 파면 촉구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4학년 재학생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대 본관 앞 잔디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주임교수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등 수년간 갑질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제주대학교의 모 주임교수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등 수년간 갑질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4학년 재학생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오전 제주대 본관 앞 잔디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파면촉구 선언문을 통해 "저희는 현재 교내 곳곳에 대자보와 현수막을 부착해 학과 내 부조리한 실태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진과 학과 측에서 저희가 부착한 대자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교수와 관련해 교수진은 저희 비대위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회유와 압박을 이어오고 있다. 학교 측은 저희의 피해사실과 학과 내 운영방식을 조사하기 보다는 학교의 명예만을 강조하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가해 교수는 각종 국제공모전에서 학생들이 수상할 때 자녀 이름을 함께 넣도록 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장 파일에도 영문으로 해당 교수의 자녀 이름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한 확인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해당 교수가 수년간 상습적인 성희롱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해당 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00보다 모텔을 더 잘 아는 데?'라고 발언했는가 하면 남학생들에게는 '여자친구 스타킹으로 눈을 가려 맹인 체험을 해 바라' 등 성희롱적 발언을 자주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해당 교수는 늦은 밤 만취상태로 학생작업실에 들어가 여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졸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학년 재학생 전원은 용기를 내 마음을 모았고, 좁은 도내 업계에 입김이 강한 권위적인 해당 교수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졸업한 선배들과 1~3학년 후배들도 한 뜻을 모아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가해 교수가 여학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해당 교수는 며칠 뒤 입장문을 배포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A교수는 "저는 1980년대에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며 예술계에서의 도제식 교육을 오랜 기간 받은 사람이다. 그로 인해 대학의 교수가 된 이후에도 제가 배워온 방식을 당연시 해왔고, 저 또한

일종의 '스파르타식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지방대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제자들의 진로를 넓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운을 뗐다.

A교수는 "그러나 나름의 목표를 이뤄가고 있다고 감히 자부했던 것과 달리, 시대가 변한 작금의 현실에는 제가 선택했던 교육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결국 저의 불찰과 정제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하는 심정으로 저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아픔을 겪은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소하다고만 여겨 개인적인 일들을 부탁하는 것이 권력 남용 및 소위 '갑질'로 인식됨을 빨리 인지하지 못한 점,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점 등 모든 불찰은 온전히 저의 탓"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또한 저의 불찰이다. 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은 교내 인권센터 등 일련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이며,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일말의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진심을 다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교수의 사과에도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파문의 과정과 향후 대책을 보고하라며 제주대학교에 지시했다.

제주대학교가 우물쭊물하자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선 셈이다. 한편 제주대는 현재 해당 교수의 수업을 배제한 상태다.

박길홍 기자

NewsJeju
www.newsjeju.net
뉴스제주

- 04 야당 참패 원인, 대안 없는 국정 발목잡기 탓?
- 06 일자리 1만개 공약했던 원희룡, 정작 비정규직은 외면?
- 07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심사, 5년 만에 재개
- 09 제주대, 정원감축 없이 정부 지원 받는다
- 10 동백동산서 도민대상 습지학교 열린다
- 11 서귀포 바닷물서 비브리오패혈 증균 검출
- 13 원희룡 포함 광역단체장 8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 15 녹색당 "원 지사, 애월문화단지 사업 중단해야"
- 16 BMK, 피아니스트 임인건 제주서 음악회
- 17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제주서 개최
- 20 원희룡 최측근 현광식,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 21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송치
- 22 [포토뉴스] 순채꽃 활짝 핀 한라 생태숲 수생식물원

NewsJeju
www.newsjeju.net
뉴스제주

구독신청 (064) 747-1188

제 107 호 2018년 6월 27일자 / 값 2,000원

발행인 남우엽 / 편집인 남우엽 / 인쇄인 현재오 발행처 뉴스제주
 본 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돈로 33 2층
 전 화 064-747-1187~8 / 팩 스 064-745-4569
 메 일 newsjeju@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newsjeju.ne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른 등록 : 제주 다-01099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야당 참패 원인, 대안 없는 국정 발목잡기 탓?

KSOI, 6.13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안 없는 국정 발목잡기'가 야당의 가장 큰 패배 원인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야당 참패 원인 "대안 없는 국정 발목잡기"

여론조사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대안 없는 국정 발목잡기'에 몰두'를 지적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보수정당의 '구시대적 가치관을 고수'했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참패 원인에 대해 '대안 없는 국정 발목잡기 몰두'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반공이념' 등 구시대적 가치관 고수' 21.6%, '보수정당의 난립 등 분열' 21.4%, '올드보이 귀환 등 인물경쟁력 부족' 11.9% 순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0.4%였다.

'대안 없는 국정 발목잡기 몰두' (34.6%) 응답은 연령별로 30대(41.3%)와 40대(39.4%), 지역별로 인천/경기(42.4%)와 광주/전라(38.6%), 직업별로 블루칼라(38.3%)와 화이트칼라(38.0%),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42.3%), 국정운영 긍정평가층(40.4%),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5.3%)과 정의당 지지층(43.5%)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시대적 가치관 고수' (21.6%) 응답은 성별로 남성(25.0%), 연령별로 20대(27.4%),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26.2%), 직업별로 자영업(25.4%)과 화이트칼라(26.5%) 그리고 학생(30.4%),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29.2%)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보수정당의 난립 등 분열' (21.4%) 응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9.3%), 지역별로 대구/경북(29.2%)과 부산/울산/경남(30.2%), 직업별로 블루칼라(26.4%)와 가정주부(27.4%),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층(31.8%), 최종학력 고졸(28.0%),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8.8%), 지지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41.4%)과 바른미래당 지지층(27.9%)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야당, 정체성 재정립 또는 해체해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방선거 패배 수습책 중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수 가치관과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 해체 및 새로운 보수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도 19.5%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지방선거 패배 수습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 국민들은 우선적으로 '보수의 가치관과 정체성 재정립' 작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습방안과 관련해 '보수의 가치관과 정체성 재정립' 33.4%, '당 해체 및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 19.5%, '중진들 총선 불출마 선언 등 인적쇄신' 14.9%, '새 인물 영입' 12.7%, '보수정당 대통합' 9.4%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10.1%였다.

'보수의 가치관과 정체성 재정립' (33.4%) 응답은 연령별로 20대(49.5%)와 30대(40.3%), 지역별로 인천/경기(39.3%), 직업별로 화이트칼라(38.8%)와 학생(55.4%),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층(38.2%), 최종학력 대제 이상(41.7%),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

(41.2%), 지지 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40.1%)에서 높게 나타났다.

'당 해체 및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 (19.5%) 응답은 직업별로 무직/기타(23.6%), 지지 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23.9%)과 정의당 지지층(30.9%)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진들 총선 불출마 선언 등 인적쇄신' (14.9%) 응답은 성별로 남성(18.8%), 직업별로 화이트칼라(20.3%), 지지 정당별로 바른미래당 지지층(20.5%), 정의당 지지층(22.0%)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북미정상회담 및 지방선거와 관련해 마련한 6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6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9.9%, 유선 20.1%)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 96%(유선전화면접 4.6%, 무선전화면접 13.3%)다. 2018년 5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됐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v.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박길홍 기자]

정의당 "제2공항, 원희룡 도정의 첫 시험대"

정의당 제주도당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을 두고 "제2공항 등 도내 산적한 과제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민선 7기 도정은 원희룡 도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6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선대위 해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제주도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난 몇 달간 하루도 쉬 없이 달려왔다. 비록 도지사 후보를 출마시키지는 못했지만 각 부문을 대표하는 5명의 훌륭한 후보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후회 없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8년 만에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 11.87%를 얻으며 1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율 6.1%(득표수 17472)를 획득했지만, 이번 선거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1.87%(득표수 40,553)를 얻어 비례의원 1석을 배정받아 정의당 제주도당 창당 이래 첫 원내정당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원 후보는 35%(득표수 3,327), 고성효 후보는 29.31%(득표수 2,005)를 각각 획득했다.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도

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의 산적한 과제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제2공항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강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과 관련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당선된 원희룡 도정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기간 거의 모든 후보가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지키겠다고 공약했

다. 제주 난개발을 막고,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새로운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 만들어 갈 것이다.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당은 "도민의 삶만 보며 정치를 하겠다. 원내 정당으로서 어깨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 정의당의 정치는 도민의 삶을 중심에 놓을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길홍 기자]

도의원 선거, 민주당 싹쓸이...한국당 대참패

민주당 25석-한국당 1석-미래당 1석-무소속 4석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제주도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반면 자유한국당은 불과 1석만 가져가면서 줄지에 근소정당으로 추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내 지역구 31개 선거구 중 25개 선거구를 석권했다. 자유한국당은

1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은 4석을 차지했다. 최대 9석을 목표로 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참패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의 양강구도가 깨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지만 제주도의원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주당이 과반의석을 훌쩍 넘는 성과를 내면서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정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율 54.2%를 기록하며 4석을 확보했으며, 자유한국당은 18.07%의 정당 득표율로 1석을 확보했다. 정의당(11.87%)과 바른미래당(7.7%)도 각각 1석

씩 확보했다.

정의당은 8년 만에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녹색당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3위를 하는 약진에도 불구하고 4.87%의 저조한 정당 득표율로 단 1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아쉽게도 의회 진출에 실패했다. [박길홍 기자]

고은영 "결국 언젠간 오고야 말 것"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장정 선거운동 마무리 회견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6·13지방선거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왼쪽은 비례대표 오수경, 오른쪽은 김기홍 후보.

제주 정가 역사상 최초의 여성이자 최연소 제주도지사 후보로 등록했던 녹색당 고은영 후보의 파란만장한 선거가 지난 13일 마무리됐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에선 역대 가장 많았던 5명의 후보가 난립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양강 구도 속에 묻혀 다른 3명의 후보들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3명의 후보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5명 후보들 중에서도 고은영 후보는 유독 눈에 띄었다.

선거 초반 가장 먼저 제주도지사 후보에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녀를, 녹색당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허나 선거과정에서 고은영 후보는 똑 부러진 발언과 논리정연한 정책들로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녹색당의 존재를 제주 전역에 각인시켰다.

최초 여론조사에서 1%도 안 되는 지지율로 시작해 선거일 막판 3위까지 치고 올라와 거대 정당 2곳을 무너뜨리는 기염을 토했다.

비록 선거 당선권에 비하면 '3.53%'는 낮은 득표율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당당히 3위를 기록했다.

소수정당의 이러한 약진은 그간 제주도지사 선거 유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성과다. 어쨌든 절반의 성공인 셈이다.

이에 고은영 후보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오수경, 김기홍 후보와 함께 6월 14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고 후보는 "다양한 단체들과 도민 여러분들이 토론회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녹색당은 좌우도 아니고 위가 아닌 아래에 있는 정당"이라며 "이 계속

된 싸움을 얻어나갈 동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 얻었다"고 술회했다.

또한 고 후보는 "표가 되는 곳보다 아픈 곳을 먼저 찾아 함께 했다. 선거과정 결엔 늘 성소수자와 여성, 장애인, 강정 및 예래동, 성산 주민들 등 아픈 이들과 함께 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도민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도민의 의지가 있었기에 이번 선거가 가능했고, 그래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유세용 작은 소품 하나까지 당원들이 힘 모아 제작해줬고, 선거 과정에서 그 많은 품을 함께 하나 하나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3.5%의 지지를 얻어 3위를 했다. 선거에서 3위는 의미가 없지만 도민 여러분이 보여준 그 3%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청정 제주 길목에서 저는 압도적인 1위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이제 느리더라도 도민들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 고은영과 녹색당은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정책 정치가 무엇인지를 선거기간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목이 메인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간의 선거과정에 주마등처럼 흘러간 기억들이 소용돌이 친 듯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녀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다

고 후보는 "이제 선거의 긴 과정이 끝났고, 선거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이전과 같이 제주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거기간 보여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후보는 "이번 선거로, 처음으로 녹색당이 검증의 시간을 갖게 됐다. 도민 여러분 덕분에"이라며 "저는 수많은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었고, 성별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녹색당 시스템의 검증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4년 뒤, 또 다른 '고은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 언젠가는 오고야 말 녹색반전의 시간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

Q. 3위. 어떤 이유라 생각하나.

A. 가능성의 씨앗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다. 언젠간 오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대화하리라고 누가 과연 1~2년 전에 상상이나 했을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변화의 순간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녹색당은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 보여줬다. 선거제도가 지금과 달랐다면,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이 있었다면 1위가 가능했는지 모른다.

선거제도와 싸웠고, 여성이 청년이, 어린 사람이 선거에 나서는 편견과 싸웠다. 녹색바람의 시작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제주에서 시작한 작은 바람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것이다.

Q. 비례대표 역시 의회 입성에 근접(4.8%)했는데

A. 이번 TV토론회에서 많은 도민들이 응답해 준 건 흑색선전이 난무한 상황에서 녹색당의 정책 선거 방법들을 보고 응원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

녹색당이 3위가 된 것은 저희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 뻗은 정치, 흑색선전, 토건세력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 아래에서부터의 정치를 원하는 이들이 원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녹색바람이 시작됐다. 선거 운동 내내 시민정치의 장을 열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다.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 사람들이 모인 선본이었다. 전국에서 뛰었던 수많은 녹색당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상식이었다. 그걸 말하고자 했다.

Q. 성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4개 진보정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20%가 넘는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양강구도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A. 지역별로 보면, 성산유세에 집중했는데, 성산지역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제2공항 백지화를 위한 동력을 이번 선거를 통해 충분히 얻었다. 거기에 응답해 준 분들이 많았다. 하루를 빼서

마을 유세에 나섰지만 많이 나와 주진 않았었다. 그래도 다 듣고 계셨을 것이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녹색당의 생각이다. 표가 되는 곳보다 아픈 곳을 찾아갔다.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국책사업에 피해 받는 주민들, 그 사업 자체가 정당한가를 꾸준히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기뻐다. 정의당에서 도의원을 배출했다. 너무 축하한다. 마지막 기자회견 할 때에도 다른 진보정당들에게라도 표를 달라고 했다. 그래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헌법소원 제기한 것도 불합리한 선거제도와 싸우려는 거다. 녹색당 혼자 도의회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수정당과 손잡고 도의회,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Q.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결과를 냈다. 녹색당을 알리는 선거 기회였을텐데, 앞으로의 행보는?

A.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모든 선거운동원들이 각자의 싸움을 했다. 각자의 선거운동을 진행해 온 유일한 정당이라 생각한다. 아직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선거내용 다큐로 남기고 있다. 내년 정도 때 개봉할 예정인데, 그때쯤 되면 결심이 서지 않을까 한다.

저는 오수경과 함께 제비뽑기로 공동위원장이 된 후보다. 시민경선을 통해 시민후보가 됐다. 저희가 갖고 있는 청년 정치인이 정말 많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2년, 4년 뒤 어떤 '고은영'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게 녹색당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다큐가 개봉할 때쯤 되면 말할 수 있을 거 같다.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이 있다면, 그들이 4년 뒤에 선거권을 갖게 된다. 그들이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겠다.

이제 저와 오수경 후보는 제주녹색당 공동위원장으로 복귀한다. 곧 있을 세월호 촛불집회에 다시 참여하면서 활동가로 이어갈 것이다.

[김명현 기자]

일자리 1만개 공약했던 원희룡, 정작 비정규직은 외면?

환경미화 노동자들, 일부 정규직 전환 결정에 반발 제주녹색당, "노동자 경합 가장 악랄한 해고 방식"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원희룡 도정이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리자 노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었다. 제주시의 경우 4개 직종 100여명의 노동자 중 경합을 벌여 6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결국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붙여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제주녹색당은 "가장 악랄한 해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유세 당시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던 원희룡 지사가 정작 당선되자 태도를 돌변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하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들은 도내 모든 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심의위가 열린 어제(21일)부터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지침을 정면 위배하는 심의위 결

정을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은 '전원 정규직화' 하라는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채 이뤄진 엉터리, 졸속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무늬만 전환일 뿐 사실상 환경미화 노동자의 절반을 해고하겠다는 통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이번 심의위 결정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고작 100여명의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1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제주녹색당은 22일 긴급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는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라는 보여주기 식의 조직을 꾸리는 것에 앞장 설 것이 아니라 당장의 비정규직 노동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약실천의 의지를 드러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기울어진 정규직전환심의회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 하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제부터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심의회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천막농성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다. 원 지사의 일자리 공약 실체가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통해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길홍 기자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시험대 서다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평가 7월 4일 실시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다시 시험대에 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평가가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 현장평가는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지질공원전문가인 중국의 '한 진팡(Han Jinfang)'과 스페인의 '안나 루이즈(Ana Ruiz)'가 참여한다.

현장평가는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성산일출봉을 포함한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동백동산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지난 4년간의 지질공원 관리현황 및 발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해설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평가자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아다멜로브렌타)에서 열리는 제8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재인증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그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기준 이상(그린카드)을 받아야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이어가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이후 2014년 재인증 성공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인증

에 도전하고 있는 셈인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 지난 4년간의 제주도 지질공원의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서, 자체평가서, 관리계획, 증빙자료 등을 유네스코에 제출한 바 있다.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인증뿐만 아니라 재인증도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지난해 재인증 현황을 보면, 35개의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평가 대상 중 34%에 해당되는 12개 지역이 경고(yellow card)를 받았다. 경고 대상지역은 2년 후 다시 재심사를 받게 되는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

우 적색카드(red card)를 받아 지질공원 브랜드를 잃게 된다.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평가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과 지질공원의 홍보 및 활성화, 국제교류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4년 재인증 당시 제시된 10개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추진해 왔으며, 대표명소 추가지정, 지질공원 해설사 신규 양성, 안내판 보수, 애니메이션 제작, 지오스쿨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 재인증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8월 최종 결론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의 숙의형 공론조사를 수행할 업체에 대한 공모 결과 2개 업체(도외업체)가 입찰에 응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녹지국제병원의 공론조사를 수행할 전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입찰금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2개 업체

가 입찰에 응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한 뒤 오는 6월 26일 업체별 제안서안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업체를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전문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정확한 공론조사를 위해 공론조사위원회와 협의, 도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도민토론회를 조속한 시일내(7월 중순경)에 제주도 및 서귀포시에서 각 1회 실시하고,

그 내용은 지역방송을 통해 중계할 계획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 중계 외에도 언론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민토론회 후에는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7월 말경)가 실시되며 동시에 200명의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해

공론조사에 대한 취지와 향후 일정 안내 및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자료집을 배부하고 숙의프로그램을 3~4 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숙의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최종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함으로써 도민 공론조사를 마무리 하게 되며, 8월 중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길홍 기자

4.3희생자 · 유족 추가신고심사, 5년 만에 재개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대한 심사가 재개됐다.

제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대한 심사가 5년 만에 재개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실무위원회 기획소위원회(위원장 김상철)는 지난 19일 제103차 회의를 열고 5년 만에 재개된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제103차 실무위원회 기획소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도·행정시 읍면동에 접수된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건 중 4·3실무위원회에 심사요청된 사안에 대해 심사

가 이뤄졌다.

그동안 읍면동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번 제 103차 회의에는 희생자 8명, 유족 469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기획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오는 7월 2일 개최 예정인 제157차 4·3 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하고 4·3중앙위원

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게 된다.

제주자치도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6월부터 4·3실무위원회를 매월 개최해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추가신고를 접수받는데 단 한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민선7기 원 도정, 공약 추진 로드맵 공개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 구성... 공약실천계획 본격 수립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로드맵이 19일 공개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민선7기 공약 실천을 위해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원희룡 지사는 공약실천 목표를 '소통강화, 도민화합, 도정혁신'으로 꼽았다. 원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10대 분야·200개 과제(선관위 등록 공약 및 발표 공약 포함)의 정책 공약과 함께 타 후보와 각 정당, 도의원들의 지역 발전 공약 중 도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공약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도민화합 공약실천과제로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도민 참여를 원칙으로 8개 분과위원회와 6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도민 토론회, 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실천과제 발굴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을 통한 실시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민선7기 공약실천위원회는 청년·보육·교육 등 특정분야 어려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며, 갈등해결·불편해소 등 최우선 도정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제주미래 발전과제에 대해서

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 간 정책조정과 조직·예산의 총괄적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도청 실·국장을 각 소관 분야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며, 소통강화를 위해 도민토론을 확대하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배심원단도 꾸려진다. 주민배심원단은 도민평가단과 무작위로 선발된 도민으로 구성되며,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심원단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수정(변경)된 공약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공약사업실천계획서를 승인하게 된다.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은 주민배심원단 승인 후 공약실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오는 8월 중 도민에게 최종 공개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단계부터 전 도민들과 도의회, 사회단체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로서 도민 대화합을 이뤄내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박길홍 기자

앞으로 퇴직공무원과 사적 접촉 시 신고해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제주도내 공직자들은 앞으로 퇴직공무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퇴직공무

원과의 사적 접촉의 신고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지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

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됐으며,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퇴직공무원과 사적으로 접촉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직·퇴직공무원 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로서 확고한 자기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길홍 기자

제주와 홍콩 초등학생들, 글로벌 우정 쌓는다



▲제주북초등학교와 홍콩 성 요셉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제주북초등학교(교장 박희순)는 지난 21 일 학교에서 홍콩의 성 요셉 초등학교와

공동수업을 실시했다.

제주북초는 제주특별법의 근본 취지인 세계속의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마중물 교육의 장으로 이날 수업을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의 요청으로 시작 됐으며 학생들의 공부추억을 색다르게 만들어주고 싶은 제주북초 6학년 교사들의 응답으로 성사가 됐다.

A반은 6학년 1반과 홍콩 학생 17명, B반은 6학년 2반과 홍콩 학생 17명으로 각각 35명씩 새로운 학급을 구성했으며 학생들은 오전 내내 글로벌 친구와 함께 '짝활동'을 했다.

글로벌 친구 맺기 수업은 어린이 자치회

에서 주관하는 '만남의 행사'를 시작으로 인사말, 환영사가 이어졌다. 또한 '짝과 함께 제주북초 탐구생활'에 이어 1블럭 미술수업, 2블럭 체육수업이 이뤄졌다.

미술수업은 작년부터 제주북초의 특색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예술가와 함께 미술 수업'으로 '작은 책 만들기'를, 체육수업은 북초 어린이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훈디놀락 프로그램 중 '전통놀이' 체험 수업이 진행됐다.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한국음식 체험'인 급식 시간이었다. 글로벌 짝과 손질, 발질, 서툰 영어로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함께 했다.

이선희 기자

故 유상종 장군 유품, 제주교육박물관 기증



▲유상종 장군 저서.

제주교육박물관(관장 김보은)은 고(故) 유상종 육군 준장의 유품을 배우자인 김춘자 여사로부터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 대구광역시 자택에서 장남 유영준(울산발전연구원 박사), 차남 유영규(예비역 공군대령), 삼남 유영재(육군중

령), 장녀 유순이(충신대 교수)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증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달 박물관 측에 실물 자료가 모두 도착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 6월에 기증이 이뤄지게 돼 그 의미를 더하게 됐다.

故 유상종 장군은 1931년 2월 21일 제주 시 일도동에서 태어나 1949년 제주농업학교(현 제주고등학교) 6년제를 졸업해 육군사관학교 12기생으로서 임관했다. 국방부 인사과장, 육군 70사단장 등을 역임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보국

훈장 삼일장, 천수장 등의 훈장과 다수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2015년 1월 5일 타계했고 대전국립현충원 장군 묘역에 안장됐다.

군 예편 이후 후학양성을 위해 대구과학기술대학, 경운대학, 일본메이카이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62년 △우리말 필만대장경 △금지과 전진 △일본 역사의 한국 △인간의 생활과 불교의 진리 △삶의 아득한 피안 등 한일관계사와 불교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남겼으며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위원과 대구국제월제어 마라톤대회 조직위원장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생 제주도를 사랑하고 그리워했으며 어린 학창시절 꿈을 키워 준 곳은 제주도라 했고, 고인의 호는 한산(漢山)으로서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자랐다고 했다. 가족들은 그 뜻을 받들고자 머지않은 6.25 전쟁 70주년을 앞둔 올해에 가족들과 협의해 유품들을 제주도에 있는 제주교육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증자료는 군 재직 시절 받은 각종 훈장(보국훈장 천수장, 보국훈장 삼일장 등)과 상패, 군예복, 지휘봉, 저서 및 육필원고, 사관생도 시절 사진첩, 부인 김춘자 여사의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시절 사진첩 등 총 36점이다.

이선희 기자

한라중,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서 다수 메달

한라중학교(교장 김재돈)는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상주 국제승마경기장에서 열린 승마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기간 동안 한라중 선수들은 전국의 선수들을 상대로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했다.

제15경기 장애물 60class 중등부 부문 오선호(2) 금메달, 고민석(1) 동메달, 제23

경기 장애물 60class 중등부 부문 오선호(2) 은메달, 제32경기 장애물 60class 중등부 부문 고민석(1) 은메달, 제37경기 장애물 80class 중등부 부문 장형준(3) 금메달, 오선호(2)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라중 김재돈 교장은 "승마 선수들이 그

간 연습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승마 꿈나무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선희 기자

어울림학교 학생들 정보기술자격시험 합격!

학교생활 부적응, 교육과정 부적응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하는 제주학생문화원(원장 장지순) 공립대안교육기관 어울림학교 학생들이 ITQ 정보기술자격증에 합격해 화제다.

어울림학교 위탁학생 4명이 ITQ 정보기술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3명이 합격증을 받

았다. 학교부적응 단계로 입교했던 학생들이 어울림학교 적응과정을 거쳐 자신의 진로를 찾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됐다.

어울림학교는 지금까지 학교부적응 상태로 입교한 학생들의 고민과 욕구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문제를 심층상담한 후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해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어울림학교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들이 갖춰야 할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소양과 경쟁력 준비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고등학교 3학년 위탁학생들을 위해 ITQ정보기술자격증반, 제과제빵

자격증반, 영어회화 기초, 기초국어학습 4개의 강의를 방과 후에 개설 운영했다.

지난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방과후에 이뤄진 어울림학교 교사들이 무료 강의와 헌신적인 노력에 학생들도 호응하면서 처음으로 도전한 ITQ 정보기술자격증 시험에 3명이 합격한 것이다.

이선희 기자

전국 대학의 36% 구조 조정되나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개... 116곳 구조 조정 불가피

전국 대학의 1/3 가량이 정원 감축 등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일반대 187곳과 전문대 136곳 등 전국 323곳의 대학을 대상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단계 심의내용으로, 전국 86개 대학에 대해 2단계 평가를 받도록 안내했다.

1단계 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가천대·삼육대·서울시립대·한양대(수도권) △강릉원주대·경일대·대구한의대·한동대(대구경북·강원권) △경성대·동아대·부산외국어대·창원대(부산울

산경남권) △건국대(글로벌)·순천향대·호서대·한남대(충청권) △광주대·목포대·목포가톨릭대·원광대(전라·제주권) 등이다.

전문대는 △동양미래대·부천대·한국복지대(수도권) △계명문화대·영진전문대·경북전문대(대구경북권) △경남정보대·마산대·울산과학대(부산울산경남권) △대전과기대·아주자동차대·한림성심대(충청·강원권) △광주보건대·전북과학대·제주한라대(전라·제주권) 등이다.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전국대학의 36%인 116곳(일반대 67곳, 전문대 49곳)으로 이들 대학은 향후 정원감축 등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학교 측에서는 구조 조정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제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모두 116곳으로, 이 가운데 86곳은 2단계 진단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내달 중 대학의 전공·교양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 등으로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

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가운데 특수목적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으며,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에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유형 I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 II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박길홍 기자]

제주대, 정원감축 없이 정부 지원 받는다



▲제주대학교 전경.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한 '2018년 대

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대는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정부의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이 일반재정은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대학 재량껏 폭넓은 곳에 사용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하는 평가다. 1단계로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 전반을 평가해 상위 60% 정

도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이 안 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통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며 정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번 1단계 평가에선 일반대학 187개 대학중 상위 64%(120개 대학)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8월 말까지 부정비리 제재 적용 등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된다.

[박길홍 기자]

관광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



▲제주관광대학교 전경.

제주관광대학교(총장 김성규)는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결과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 결과 전국 대학 중 상위 64%에 해당하는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 전문대학 87개)이 1단계를 통과했다.

1단계를 통과한 대학은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감점) 여부 심의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국고로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김성규 총장은 "이번 기본역량진단에서 (예비)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제주관광대학교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의 비전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관광대학교는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육성(SCK)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사회

맞춤형 중점형', 등의 사업선정과 기관 평가인증대학 선정, 교육국제화역량인증, 교원양성기관평가 A등급 획득,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대학 등 여러 평가인증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박길홍 기자]

NewsJeju

뉴스제주 / 기사제보

광고문의

064-747-1188~8

장애인보장구 수요 희망자 여전히 많아

제주시가 2018년 상반기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요 희망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원실적은 78명에게 787만 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 26명에게 보청기 구입비 346만 원을 지원했다. 지체장애인 22명에게 수동휠체어 등 구입비 296만 원, 기타 30명에게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구입비 1617만 원을 지원했다.

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는 85개 품목

으로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지원되며, 유형별 지원기준 한도액은 전동휠체어 209만 원, 보청기 131천 원, 의족 72만 원 등이다.

지원절차는 장애유형별 전문의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시가 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해 적격으로 결정되면 장

아인보장구를 구입한 후 그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의료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백기영 기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두르세요

제주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주민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이번에 공시한 토지는 제주시 관내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31만 856필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6.9%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18.4%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지만 2015년부터 연속 4년째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정보통합열람(<http://kras.jeju.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해당지번과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통해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최종 공시

한다.

제주시(종합민원실)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물론 건강보험료, 노인연금, 국가장학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백기영 기자

제주 임항로, 돌담길을 아시나요



▲제주시는 임항로 주변 사라봉입구에서 김만덕객주삼거리까지 가로녹지 화단에 제주 돌담 설치 및 야생화와 다양한 꽃을 식재하는 '임항로 정원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제주 자연과

문화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임항로 정원숲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말부터 약 4억 원을 투입해 임항로 주변 사라봉입구에서 김만덕객주삼거리까지 가로녹지 화단에 제주 돌담 설치 및 야생화와 다양한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다.

우선 제주 올레 돌담길을 형상화하기 위해 곁담 321m, 홑담 235m를 설치해 제주다운 독특한 아름다움을 연출 할 수 있도록 조

성했다. 가로화단 곳곳에 백리향, 수크령, 억새류 등 초화류 11만 2575본을 식재하고 능소화, 황근, 팽죽나무 등 관목류 667본을 식재해 돌담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로화단을 조성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임항로 정원숲 조성지를 걸어가면 돌담길을 경험한 세대는 어릴 적 올레 돌담길을 걷는 느낌이 새록새록 피어나 옛 추억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하지 못한 세대 및 제주를 여행 중인 관광객은 제주 예전 돌담길 문화를 체험하게 돼 잊지 못

할 추억으로 남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7호광장~신제주로타리(0.8km) 구간에 사업비 약 11억 원을 투입해 올레 7월말 조성완료 목표로 그라스류, 숙근초 및 계절화 등 12만 607본을 식재하고 제주 꽃자왈을 연출하기 위해 크고 작은 자연석 536개를 배치, 또 다른 제주형 도시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신대로일원 정원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백기영 기자

동백동산서 도민대상 습지학교 열린다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에서 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습지학교가 열린다.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앞두고 습지가치 인식 저변확대와 공감대 형성, 도민들이 보전주체가 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조천읍 지역관리위

원회(위원장 조천읍장외 2) 주관으로 도민역량 교육이 실시된다.

세부프로그램으로 람사르습지에 대한 이해, 습지보전의 필요성 인식확대, 곤충류와 식물 이해, 동백동산의 물이야기, 습지현장 탐방,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습지 사진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7월 한달동안 매주토요일 오

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참가신청 접수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21까지 동백동산습지센터 064-784-9446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역량강화 교육과 병행해 동백동산을 포함한 조천읍이 람

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도시로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 생태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보전 책임과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지역주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백기영 기자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 유관기관 합동 점검

제주시는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장비 설치여부를 유관기관(제주동·서부경찰서)과 합동으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촬영 상황은 흥익대 몰카사건 등에서 보듯이,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용이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몰카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8일 오후 12시 5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차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가 현장 검거되기도 했다.

점검내용은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파·렌즈탐지형 탐색장비 등 전문 탐지장비가 동원된다. 6월 23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몰래 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몰카 찰카! 수감 찰카! 문구를 삽입한 랩핑 설

치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앞으로 제주시는 불법촬영장비의 점검과 더불어, 해수욕장 주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등 개선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위생편의 제공 및 올레주변 등 취약지역에 주기적으로 경찰과 합동 점검하여 안전한 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백기영 기자



제2공항 갈등 유발자가 명예도민?

시민단체, 손명수 철도국장 추천 철회 촉구



▲시민단체는 손명수 국장이 제2공항에 대한 부실 용역으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한 책임자라고 지목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손명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손명수 국장이 제2공항에 대한 부실 용역으로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한 책임자라고 지목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국토

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행정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인물로, 현재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

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는 찬반 갈등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책임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6월 21일 논평을 통해 "제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인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행동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

절한 동의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 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 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 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해서도 점검, 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길홍 기자]

"안일한 정부 대응에 보조 맞추는 도정"

제주서 245개 라돈침대 수거... 안전문제 대응 도마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라돈검출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제주에서는 245개의 라돈침대가 수거돼 충청남도 당진항으로 운반됐지만 안전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정에서는 라돈침대 수거와 관련해 현황과약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진침대의 라돈검출사태는 전 국민을 패닉상태에 빠지게 했다. 생활방시능 문제가 전국을 강타했고, 특히 당진시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라돈침대의 운반과 반입으로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해 있다.

여기다 이를 수거 및 운반하는 집배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몇 개의 라돈침대가 어디로 향했는지 관심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운반하는 집배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갖추고 또 운반시에도 주변 환경에 영향 없이 작업이 이뤄졌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제주지방우정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지난 6월 16일과 17일 양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245개의 라돈침대가 수거돼 충청남도 당진항으로 운반됐다.

하지만 안전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도내 13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21일 논평을 내고 "라돈침대 수거와 관련해 제주도는 현황과약 조차하지 않고 있다. 해당사안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수집과 그에 따른 대응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제주도가 하는 일은 문의 전화가 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라는 것이 전부다.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가장 먼저 기대고 문의하는 곳이 제주도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라돈은 1급암발물질로 분류되는 위험한 방사성물질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도정이라면 과련 정보의 수집은 기본이고, 의심제품에 대한 문의나 신고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체계가 사태발생 한 달을

넘어서고 있지만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이번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는 외중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안일한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탈핵도민행동은 "당장 현황과약과 분석은 물론 의심제품의 문의에도 철저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민들이 신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직접 피해신고 접수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해 도민의 신고편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제주도가 간이검사기를 통해 직접 조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전담할 대책기구를 빠르게 구성해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제주도가 해야 할 최우선 업무"라고 강조했다.

[박길홍 기자]

원희룡 포함 광역단체장 8명 '선거법 위반' 수사 중

대검찰청 공안부, 선거사범 조사현황 발표 전국 17개 시·도지사 당선인 중 9명 입건, 1명 불기소, 8명 수사 중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당선 기쁨도 잠시,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 간 각종 고소·고발로 인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14일 이번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시장 및 도지사) 당선인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입건됐다.

9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8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당선인엔 원희룡 제주지사도 포함돼 있다. 원 지사 외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다.

현재 원희룡 지사는 본인에게만 3건, 주변 인물들에게 3건 등 총 6건에 대해 제

주도선관위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집어 들어 자신의 공약과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때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연설·대담·토론회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마이크 등의 확장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 다.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를 집어 든 원 지사의 경우, '그 밖의 집회'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상대 후보인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제주도선관위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원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서도 축사를 전 하면서 청년정책 등의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원 지사는 하루 뒤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장에서도 축사를 전 하면서 청년정책 등의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문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머지 한 건은 TV토론회 도중 불거졌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권에 관한 사항이다. 문대림 캠프 측 홍진혁 대변인이 원희룡 지사와 박종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을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원 지사 주변 인물들 중에선 현직 고위 공무원인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이 지난 5월 11일에 본인의 SNS를 이용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해 서부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6일엔 서귀포 표선 지역의 한 장어집에서 70명에게 35kg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원 지사의 출정식에 참여해달라고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

다. 문 후보 측에선 이를 명백한 '불법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원 지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던 지난 5월 17일에 동창회장과 사무국장이 동창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체 선거사범은 총 2113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177명이며, 93명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나머지 1801명은 수사 중이며, 29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38.4%(812명)의 비율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금품사범은 18.2%(385명), 여론조사 조작 사범 5.9%(124명), 공무원 선거 개입 사범 3.4%(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엔 총 2111명이 입건돼 올해 지방선거와 비슷했다. 총 2111명이 입건돼 222명(구속 기소 50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다만,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선 거짓말 사범이 20%가량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선 6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석문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 없다.

제주지역 선거사범에 대해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확한 집계를 파악 중에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집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내주 월요일(25일)께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

갈수록 지능화되는 '병역면탈자' 색출 강화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신장이나 체중을 조작해 머리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병무청이 병역면탈자에 대한 색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병역면탈 단속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18일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본청을 컨트롤 타워로 중부권(서울)과 남부권(대구)에 광역수사청을 설치하고 전국 각 지방병무청에 현지단속 특별사법경

찰을 배치해 병역면탈자를 색출하고 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총 3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연수원 등 유관기관 전문교육과 자체 교육시스템을 통해 수사전문성과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병무청은 지난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해 출범 이래 1만여 명의 병역면

탈 의심자를 조사하고, 그 중 280여 명의 병역면탈범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최근 신종 병역면탈 사례를 보면, 신장 및 체중(BMI, 체질량지수)을 조작하기 위해 머리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척추측만증을 과장하거나, 심지어 우울장애, 지적장애 등을 위장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모 대학병원에서 의무복무를 하던 의무사관후보생이

공중보건의가 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거나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면탈을 시도한 병역 의무자도 있었다. 이처럼 병역면탈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김재근 제주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길홍 기자



공공기관 15곳 채용비리, 42건 적발

감사위원회, 인사·채용 업무 전반 감사결과 공개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 부적절한 채용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에서의 최근 5년간 인사 및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42건 중 징계는 2건, 주의 30건, 통보 9건, 권고 1건 등이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한 신분상 조치는 29명(징계 2명, 주의 6명, 훈계 및 경고 18명)이 받게 됐다. 이 외 6건은 별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제주도 내 출자·출연기관은 총 17곳이며, 이 중 5년간 채용실적이 없던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올인(주)을 제외하고 15곳에 대한 감사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다. 15곳에서 5년간 채용한 인원은 총 1807명(정원 외 채용 202명 포함)이었다.

감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 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제주문화예술재단 5건, 제주도체육회 4건 순으로 적발됐다.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에너지공사, 서귀포의료원, 제주4.3평화재단이 모두 3건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제주연구원은 2건이 적발됐다.

이 외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의료원,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이 각 1건 씩 부적절 채용사례로 지적받았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1일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채용예정 인원을 모호하게 정하고 전형별 심사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르지 않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특히 2차 면접전형에서 A씨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2차 면접전형 기준을 임의로 작성한 후 B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2차 면접에서 B씨는 불합격처리 되어 했지만 합격 처리 된 후, 3차 시험에서도 2순위였지만 최종 합격자에 포함됐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선 인사실무자 C씨가 지난 2015년 6월에 인사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서 채용공고를 낸 뒤, 응시요건 자격미달인 D씨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처리한 후 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게 A씨를,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에게 C씨를 각각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 2015년 7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냈으나 학력과 경력 등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는 채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만을 보고 임의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해 면접기회를 부여했다.

이로 인해 응시자 8명 중 3명이 서류전형 탈락자가 돼 면접에 응하지도 못했다.

또한 특정 분야 채용에 응시자가 없어 다른 분야에 지원했으나 면접시험에서 2순위로 탈락한 E씨를 채용해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으나, 도감사위는 "해당 분야에선 관리경력자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해당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채용한 건 적절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재단 내 인사담당자들에게 엄중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4.3평화재단에선 지난 2014년 2월에 유족치료비 지원업무를 담당할 6급 1명을 채용공고를 내면서 응시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제시해 이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한 F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채용공고 26회 중 23회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제한적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도감사위는 "공개경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채용공고를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 다수의 사람들이 취업정보를 알지 못해 응시기회를 제한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체육회는 지난 2015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을 도감사위로부터 지적받아 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진행된 채용공고에서도 또 다시 7회 중 5회를 도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도체육회 직원 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던 것도 밝혀졌다.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라 공금 횡령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과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선 징직 6개월 이상 1년 미만 또는 강등, 중대한 경우엔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도체육회는 최소 징직 6개월 이상을 처분해야 하는데도 '사무국 처무규정'에 이러한 징계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처분을 받은 G씨 등 3명에게 감봉 1개월 처분만 조치했다. 김명현 기자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주포럼 온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성과정리 및 한반도 평화 논의

오드리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이 6월 26일에서 28일 열리는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다.

현직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포럼 마지막 날인 6월 28일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인 원희룡 도지사와 한반도 평화 및 제주의 미래가치, 유네스코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나눈다. 대담에 앞서 아줄레 사무총장은 오전 10시 내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프랑스 문화부 장관 출신인 아줄레 사무

총장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선언과 관련된 자신의 트위터 글에서 "한국 정상들의 역사적 선언을 환영한다"며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유네스코도 관련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주제로 열리는 만큼 아줄레 사무총장이 제주와 유네스코, 평화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된다.

이번 제13회 제주포럼에는 이 외에도 세계적인 전현직 인사들이 참여하며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및 다수의 현직 국회

의원들이 참석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정리 및 토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주관하는 세션은 총 12개(별첨)로 평화관련, 예술분야, 4.3관련, 관광·투자유치, 지방분권 등의 주제로 운영된다.

마지막 열리는 평화 콘서트에는 강산에(남북평화협력 기념 평화공연), 오연준(남북정상회담 만찬 공연), 제라진어린이합창단,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 공연도 펼칠 예정이다.

오는 27일 개회식과 세계지도자세션에는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 반기문 전 유엔사무

총장 등이 기조연설과 토론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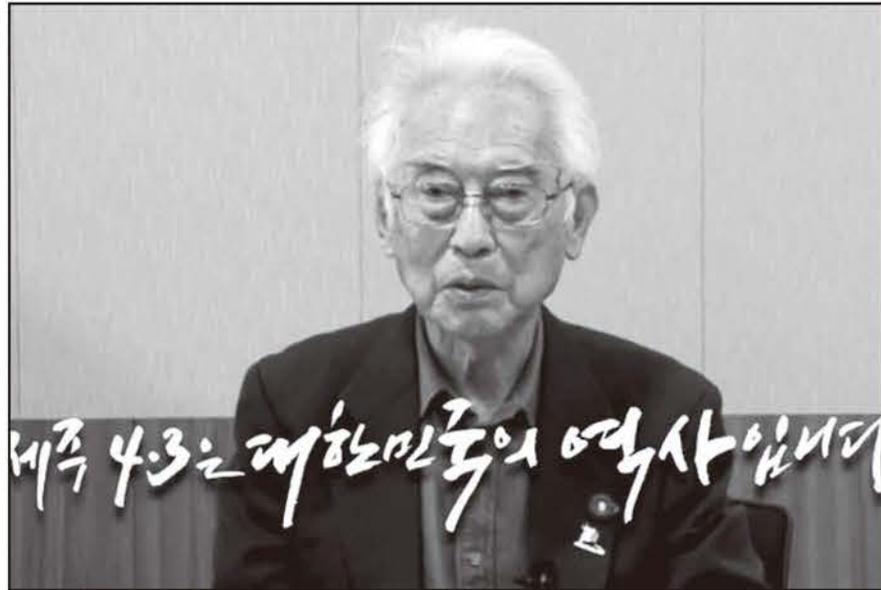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정세 현안 논의(조셉 윤 미국(자회담 대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등)가 이뤄지며 국제자문위원회 세션에서도 북중·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망을 다룬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올해 제주포럼은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 인증, 지난해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현직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방문으로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기영 기자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소설가 김석범 상반기 캠페인 마무리 주자



▲소설가 김석범.

올해로 92세를 맞은 재일동포 소설가 김석범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캠페인에 43번째로 참여했다.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이하 4·3 범국민위)는 최근 4·3 범국민위 공식 페이스북(4370jeju) 등을 통해 소설가 김석

범이 참여한 캠페인 동영상과 상반기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43인의 총합편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4·3 범국민위가 진행한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캠페인은 김석범을 포함해 43인이 넘는 정당 대표와 광역도지사 등 정치인과 배

우와 소설가 등 유명인사가 참여, 올해 전 국민에게 제주4·3 70주년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

소설가 <까미귀의 죽음> <화산도>로 유명한 김석범은 이번 캠페인 영상에서 ‘4·3의 정명, 43 민주항쟁’이란 인상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더불어 이번 영상은 김석범이 지난 4월 열린 ‘4·3에 살다’ 대담에 참여, “4·3의 정명을 통해 4·3의 역사적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며 “이승만 정부는 친일과 정부다. 그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제주 4·3을 거짓으로 꾸며댄 거다”라며 거침없는 발언을 담아 더욱 눈길을 끈다.

문소리·안성기·김혜수 배우와 가수 이승환, 소설가 현기영 등 다수의 유명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등 광역단체장들

과 정치인들도 캠페인에 동참, 4·3의 아픔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소설가 김석범을 끝으로 상반기 캠페인을 마무리한 범국민위는 하반기부터 일반인이 동참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감에 4·3 70주년 알리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 434첫 번째 인사로 오는 7월 3일까지 기획전 ‘제주43 이전 우리의 역사’를 진행 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진오 관장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 범국민위 측은 “2018년 상반기는 제주4·3 70주년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며 추모와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한반도 전체로 평화 분위기가 이어진 것 같다”며 “올 하반기까지 캠페인을 지속해 제주4·3을 알리고 평화 분위기가 더 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녹색당 "원 지사, 애월문화단지사업 중단해야"

제주녹색당이 원희룡 도정을 향해 "당선 중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애월국제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을 필두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선거운동 당시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고 지난 4년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해 대규모 부동산 관광 개발 위주 사업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0

건'이라고 밝히며 문대림 후보와 개발 책임논쟁을 벌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등에 의거해 본 선거에 돌입하기 하루 전날인 5월 30일자로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 자회사 (주)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가 추진하는 애월복합단지는 제주 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해발 약 400m 고

지의 중산간 지대에 58만726㎡ 면적으로 조성될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녹색당은 "자본검증을 거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를 비롯해 중산간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줄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애월국제문화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을 필두로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원희룡 지사의 정치에 도민들은 관심과 기대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 선거기간 보여준 도민들의 바람은 이제 더 이상 제주를 개발하지 말라는 명령이었다. 부디 도민들의 바람을 다시금 저버리지 말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브레이크를 달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백길홍 기자

한 발 물러선 홍영표, 민노총과 토론회 약속



▲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 20여 명은 지난 10일 당시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사무실 앞에서 '홍영표 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주도했다'며 규탄 투쟁을 벌였다.

지난 6월 10일 제주를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달 중으로 민노총과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약속

했다. 앞서 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 20여 명은 지난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문대림 후보 사무실 앞에서 "홍영표 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주도했다"며 규탄 투쟁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홍영표 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항의하는 민노총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과 야합해 통과시킨 최저임금 개

악법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느냐"며 홍 대표에게 항의했다.

이에 홍 대표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15만 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25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문한 내용에 대해 홍 대표는 "2500만 원 이하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마땅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후 홍 대표는 민노총 조합원들과 설전을 벌이던 중 "6월에 반드시 제주에 내려와 민노총과 토론회를 할 것이고, 민노총의 주장이 맞다면 법안도 폐기하고, 원내대표직도 사퇴하겠다"고 언론했다.

이에 민노총 제주본부 김덕종 본부장은 "최저임금 개악법은 노동현장의 상황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저지른 개악법"이라며 "이달, 홍영표 대표와의 토론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삭감법이 잘못됐음을 알려내고 최저임금 개악법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BMK, 피아니스트 임인건 제주서 음악회

김창열미술관 개관2주년 기념음악회 29일 개최



▲김창열미술관 개관2주년 기념 음악회 포스터.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오는 6월 29일 오후 5시 미술관 야외무대에서 개관2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미술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블랙소울뮤직의 대모 BMK, 재즈 연주에 순수 열정을 더하는 피아니스트 임인건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BMK는 파워풀하고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소울&펑크(SOUL & FUNK), 애시드 재즈, 어반(URBAN), 힙합 등 블랙뮤직(Black Music)으로 통칭되는

음악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해석력을 바탕으로 블랙&소울 뮤직의 국모라는 독보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다.

임인건은 국내 최고 재즈피아니스트로 1990년대 후반 재즈 그룹 '야타(YATA)'의 리더이며 한국 재즈 1세대 뮤지션들과 가장 많은 협연을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음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술관에선 행사 당일 미술관을 찾은 내방객들에게는 김창열 화백의 '

두 개의 물방울처럼'展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창열미술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를 통해 관람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가영 기자)

사봉낙조 특별경주, 차세대 스타 한라마를 찾아라



▲렛츠런파크 제주.

차세대 스타 한라마를 가리는 사봉낙조

특별경주(3세 이상 한라마, 1400m, 총상금 5,000만원)가 오는 6월 9일(토) 렛츠런파크 제주 제6경주(오후 4시)로 펼쳐진다.

7월 14일에 열리는 한라마 대상경주의 전초전 격인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를 이끌어 갈 차세대 스타 한라마를 가린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경주의 최대 관심사는 폭발적인 추입력을 보유한 '미인세상(4세, 암말)'과 어느덧 6세 노장마가 됐지만, 옛 명성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라보배(6세, 암말)'의 맞대결이다.

한라마 대상경주 출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우승경쟁으로 어느 대상경주에 못지않은 재미있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신예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는 '신기속도' 등이 도전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길홍 기자)

'2000원의 행복' 포니 워터파크 개장

가족형 말테마파크 렛츠런파크 제주가 지역민을 위한 저렴한 워터파크로 변신한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은 오는 6월 29일부터 말(馬)을 테마로 한 물놀이시설인 '렛츠런파크 제주와 함께하는 포니 워터파크'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워터파크는 오는 9월 2일까지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해발 400미터의 깨끗한 수질, 넓은 그늘 지역



▲포니 워터파크

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지난해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렛츠런파크 제주의 어린이 전용 물놀이 시설이 올해 워터파크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다.

1000여 명을 도시에 수영할 수 있는 '포니 워터파크'에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대형 수영장, 유아 전용 놀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이외에도 물로켓 만들기 체험과 친환경 헤나 체험, 어린이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경마가 시행되는 금, 토, 일에는 렛츠런파크 제주 입장고객이라면 누구나 단돈 2000원으로 물놀이용 말 테마파

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경마가 없는 평일(월, 화, 목)에는 3000원의 어린이 입장료만 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렛츠런파크 제주 윤각현 본부장은 "지역민들에게 다가올 더위에도 시원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세계적인 테마파크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가영 기자)

제주맥주, 팝업스토어 하반기 출시

제주맥주 주식회사(대표 문혁기)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오픈 한 팝업스토어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에서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신제품 맥주를 한정 판매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맥주가 팝업스토어에서 한정 공개하는 이번 신제품은 페일 에일 타입의 맥주로, 올 8월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출시된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와 제주 위트 에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정적으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만 판매되던 제주 위트 에일의 전국 유통을 기념해 마련된

제주맥주 팝업스토어 '서울시 제주도 연남동'은 오픈 열흘 만에 누적 방문객 2만 5000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가진 여유와 힐링의 느낌을 서울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단순히 맥주를 마시는 것뿐만 아

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마련해 주목 받고 있다. 팝업스토어에서 진행되는 비어 요가, 비어캔들 만들기, 마크 라메(매듭 공예) 원데이 클래스는 예약 오픈 직후 전 회차 매진됐다. 제주맥주와 제주 로컬 푸드와의 푸드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는 '푸드 라인업' 행사도 매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

(박가영 기자)

고용률 뚝... 제주경제 '빨간불'

호남지방통계청, 경제활동상태 조사결과 발표



▲제주지역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0%p 하락했다. 제주지역 고용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경제의 빨간불이 켜졌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전국 표본조사구 약 3만4,800가구 중 제주지역 1,100가구의 15

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2018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률은 68.6%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p 하락했다.

취업자는 37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감소했으며,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3.8%로 전년 동월 대비 3.1%p 하락했다.

제주특별자치도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5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는 37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1.4%) 감소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9.6%로 전년 동월 대비 3.0%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14.2%) 증가했으며, 취업자는 37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1.4%)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만 3,000명으로 1,000명(0.6%) 증가한 반면 여자는 16만 9,000명으로 7,000명(3.8%) 감소했다.

특히 고용률은 68.6%로 전년 동월 대비 3.0%p 하락했는데 성별로 보면 남자는 75.5%로 2.0%p, 여자는 61.8%로 4.1%p 각

각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3,000명(5.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0.7% 증가했으나, 광공업 1,000명(-9.9%), 건설업 3,000명(-8.2%), 도소매·음식숙박업 2,000명(-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00명(-1.6%)으로 각각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000명(7.4%), 사무종사자 1,000명(1.8%), 서비스·판매종사자 2,000명(1.7%) 증가한 반면 관리자·전문가는 8,000명(-14.0%),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이 4,000명(-3.2%)으로 각각 감소했다.

[백길홍 기자]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제주서 개최

사드로 중단됐던 한중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사드 사태로 중단됐던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한중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가 2년 만에 제주에서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6차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이 4차 산업혁명, 한·중 현황과 미래의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중문 컨벤션제주호텔에서 열린다.

라운드테이블은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국의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가 공동 주관하는 세계 CEO급 회의로, 지난

2012년 첫 회의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5차례 매년 서울과 북경에서 순회 개최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제주 개최는 2016년 3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국에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김영대 대성그룹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에서는 장사오위(张笑宇) CICPMC 상근부회장, 구진성(谷金生) 중한경제참사관, 린징전(林景臻) 중국은행 부행장 대행위원장, 황더(黄

德) 중국은행한국대표, 청웨이완(程慧娟) 중국은행 금융부 부총경리, 주빈(瞿斌) 염성시 경제개발구 부주임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 분야별 현황과 한중 협력방안, 일대일로(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와 한중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신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이종석 전통일부장관의 특강을 이어가며 한한령 해빙 모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이번 행사에서 '제4차산

업혁명, 제주도의 미래와 한중협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

원 지사는 제주가 4차산업혁명을 리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시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테스트 환경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 및 얼리 액세스 모델 구현 가능 지역인 제주에 국내와 중국의 CEO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백길홍 기자]

제주관광 조수입 5.6조원 추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관광 조수입 지난 2016년 확정치와 2017년 잠정치를 발표했다.

제주관광 조수입은 2016년 5.5조원(확정)으로 내국인 3.6조원, 외국인 1.9조원으로 추계됐고 2017년 5.6조원(잠정)으로 내국인 4.0조원, 외국인 1.6조원으로 추계됐다.

사드여파에 따른 외국인 조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조수입 증가로 인해, 2017년 전체 조수입은 전년대비 약 0.1조원 증가했다. 이

로써 제주관광 조수입은 4.7조원(2015년), 5.5조원(2016년), 5.6조원(2017년)으로 완만하지만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제주관광 조수입 증가율(증가액)은 2016년 17.1%(0.80조원)였으나, 2017년 14%(0.08조원)를 기록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조수입 증가율(증가액)은 2016년 11.2%(0.36조원), 2017년 11.5%(0.4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조수입 증가율은 2016년 3.4%(0.44조원), 2017년 -17%(-0.3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입 증가율 둔화는 사드여파에 따른 외국인 조수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업종별 제주관광 조수입(전년대비 증가액)은 소매업 2조 357억 원(1259억 원), 음식점업 8558억 원(209억 원), 숙박업 7771억 원(766억 원), 예술·스포츠·여가 5600억 원(-92억 원), 운수업 5466억 원(46억 원), 기타 4716억 원(201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 조수입은 2014년까지 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지출비용에 근거한 지출접근법으로

추계됐으나 2015년부터는 해당연도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신용카드 통계자료 등 기초자료에 근거한 생산접근법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현실에 맞는 조수입을 추계하기 위함이다.

2017년(확정) 추계는 관련 기초 통계자료가 발표되는 2018년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관광 조수입 계추'붙임자료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jtcor.kr) 관광자료실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백기영 기자]

국제전시회 참가업체에 참가경비 지원

제주시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수출업체에 참가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수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출상품에 대

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시내 공장(제조업)을 소재한 수출(희망)업체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

모의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에 1사 2인까지 국내 왕복 항공요금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참가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참가 증빙자료 등을 제주시내 제출하고, 전시회 참가 후 전

사회 참가 결과보고서, 참가확인서 및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는 21개 업체에 371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18년에도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백기영 기자]

→ [기고] 김달수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회장

'6.25전쟁 68주년에 즈음하여'



의 비극 6·25전쟁만은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월은 짙푸른 산과 들에서 힘찬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동적인 달이다. 그러나 역동적인 달 6월을 느끼기엔 우리 가슴속에 이물지 않는 상처가 너무 깊다. 동족상잔

비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당한 전쟁이 6·25전쟁이었다. 211대의 소련제 야크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고 소련제 소총과 기관총, 대포로 무장한 20만의 병력이 24대의 전차를 앞세워 물밀 듯이 밀어닥쳤을 때, 우리에게는 항공기라고는 연습기 22대 밖에 없었고 전차는 한 대도 없었다.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대전차포 하나 없는 상황에서 포병은 직접조준 사격으로 적의 육중한 전차와 맞서 싸웠고, 육탄용사들은 포탄을 끌어안고 적 전차 속에 뛰어들었다.

6·25전쟁 68주년을 맞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 분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생존해 계신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68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도, 잊을 수 있는 전쟁도 아니다. 북에선 너무나 철저히 준비하고 남에선 아무 대비 없이 병력의 3분의 1을 외출·외박을 보낸 무방

제주 출신 6·25전쟁 참전자는, 6·25전쟁 제주 호국영웅 4인 인, 고 김태문 대위, 고 강승우 중위, 고 김문성 중위, 고 한규택 하사를 포함, 8,558분이 참전하여 2,022분이 전사하는 등, 우리 할아버지와 남편, 아버지들은 이름 모를 산야에서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정전협정으로 전쟁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와 남편, 아버지들은 이름 모를 산야에서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정전협정으로 전쟁의 포성은 멈추었지만 6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한반도 평화적인 통일이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이 폐기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이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다. 회담을 지지하며 또한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여·야, 이념과 진영을 초월하여 국가역량을 결집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것이 6·25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다. 오늘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서예(西厓) 유성룡(柳成龍)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사실을 기록한 저서 "미리 장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 라는 뜻의 「징비(懲毖錄)」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목숨을 바친다는 '견위치명(見危致命)'이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아들딸은 조국의 부름을 받아 지금 이 순간에도 참호에서 휴전선을 지키고 고 윤영하 소령의 충훈이 담긴 바로 그 윤영하 함을 타고 북방한계선(NLL)과 서해바다를 지키고 있다. 호국영령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육·해·공의 모든 장병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는 오는 6월 25일 6·25전쟁 68주년을 맞아 제주시 한라아트홀에서 6·25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다시 한 번 참전용사 여러분의 '위국헌신(爲國獻身)'에 옷깃을 여미며,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 [기고] 강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나라사랑 큰 나무를 가슴에 달아 주세요



유족 위로와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6월은 국가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 국가유공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및

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며 국민화합을 지향하고 있다. 나라사랑 큰 나무는 국가 유공자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 유공자의 애국심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복 60주년과 6.25 전쟁 55년이 되던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 나

라사랑 큰나무를 가슴에 달아주세요'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배지를 패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에 제주 보훈청에서는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를 학교, 기업체, 각급 기관, 단체 등으로 6,000개를 배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신청은 제주 보훈청을 방문하거나, 나라사랑큰나무 홈페이지(korealovetree.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단, 배지 수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나라사랑

큰나무가 온 국민의 가슴 위에서 커다란 버팀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이뤄낸 결과다.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에게도 지금의 이 행복을 물려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감사와 의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패용을 통해 '보훈'이라는 가치를 즐기고 의미있게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기고] 김영준 제주자치도 FTAd 대응 담당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新 농정모델 제시



근 시장 출하 억제 등 도매시장에서 제주 당근 이마지를 쇠산하고 타 품목 주산지 조직화 촉진 및 가격지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 농산물은 국내시장 경쟁력이 불확실하고 시장가격 변동 폭이 커서 항상 가격 위험 요소가 상

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제주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대안을 찾고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는 단일 품목에 대하여 단순하게 가격을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아니다. 생산농가, 생산자 단체, 품목단체 스스로 자율 수급조절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퍼센트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시범사업 품목도 자조금 등 조직화가 잘 되어있고 전국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채소 가격 안정 관리제 지원 품목에 제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특히 농가의 지구적

인 선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고품질 생산 및 자급 품 출하 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두어 정책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목표 관리 기준가격은 경영비와 유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사전 정책수단 사업 등 노력을 하였으나 시장가격이 떨어져도 차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경영비 등 일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다만 목표 관리 기준가격 결정액이 낮다는 현장 의견은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과제, 목표관리 기준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 등 주산지 농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당근 재배 농업인이 자조금을 조성하고, 자급품 당근 10% 산지 격리, 비상품 당근 출하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근 품목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제주형 당근 가격 안정 관리제 시범사업을 계기로 다 품목도 주산지 조직화가 활성화되도록 농협의 재 역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직화가 되어야 본 제도가 운용되고 더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당근 품목은 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제주형 농산물 가격 안정 관리제가 제주형 新 농정 모델을 제시하여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고]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민선7기 도지사 당선인에게 바란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호(號)를 이끌 도지사에 당선되신 것을 상공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

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출범할 민선7기 제주도정은 원칙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도민 통합으로 자랑스러운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줄 것으로 도민들은 믿고 있다.

당선인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무엇보다 선거로 흐트러진 도민사회의 통합이 중요하다. 편을 나눈 울타리를 걷어내고 상대를 포용하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면서 흥금을 터놓고 손을

잡는 적극적인 행보도 중요하다. 따뜻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 요인들을 찾아 접점을 모색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은 경제다.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번듯한 일자리라는 가장 중요한 복지다.

또한, 지역경제의 싹싹줄인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and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며, 도민들의 생활의 질과 직결된 문제들도 근본적인 처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의 미래를 위한 사회 인프라 시설의 조속한 확충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주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리모델링 나서야 할 것이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출범의 흥분과 감동이 차질 없는 행정으로 이어져 훌륭한 평가와 찬사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기고] 윤경필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장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친절을 베풀겠습니다!



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재단의 경우 민원인과 최일선에서 대면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의 친절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재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분들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해 재단을 방문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 초부터 우리 재단에서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중심의 업무혁신'을 전사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먼저,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시켰다.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 분들이 동사무소, 세무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야 했던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켜, 신속한 자금지원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와 더불어 신용보증서 발급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시켰다.

두 번째로, 대출금을 전액상환하기 곤란한 자영업자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신용보증서 기한이 만료된 특례·

특별보증 이용업체와 보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증서연장 심사 업무를 생략하는 등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고객친절은 꾸준히 노력하고 몸에 습관화 되도록 배워야 하기에 지난 달 30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사랑 친절-UP 결의대회' 개최하였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변화를 다짐하고, 기본적인 매너와 미소, 친절을 지키고 실천하기로 서약하였다.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보증업무 개선을 위해 재단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안내 친절도우미서비스'를 신규로 운영하고, 직원 친절모니터링 해피콜서비스 매주 운영, 직원 친절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민원안내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불친절 직원에

게는 친절교육 강화 등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NCS 기반의 직무역량 교육과 CS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하여 고객감동을 위한 최적화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민간서비스 만큼이나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고객은 우리 재단이 존립할 수 있는 근원이자 지속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북경에 있는 한 마리 나비의 날개 짓이 뉴욕에 큰 폭풍을 몰고 온다.'는 말처럼, 은행 대출문턱을 넘지 못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먼 길을 찾아 온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고객을 대한다면 고객만족을 넘어 제주도민 모두의 더 큰 행복이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기고] 박대진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차장 확보는 훌륭한 투자 수단이다



금상첨화다.

사무실 회식, 동창회, 가족 모임 등을 위해 식당을 예약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맛있는 식당, '맛집'은 기본이고 합리적인 가격, '가성비'도 중요하다. 거기다가 분위기가 좋은 곳이면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접근근성이다. 서울 같이 전철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지하철역 근처, 소위 역세권이 모임 장소로 인기가 많겠지만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된 우리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여부가 곧 접근성이다.

"그 식당 차 세울 데는 있어?" 물으면 예전에는 도로가 곧 주차장이라는 인식으로 "그냥 길가에 세우면 되지." 대답했지만 이제는 불법 주차 과태료가 무서워서라도 주차장이 잘 된 식당을 먼저

찾게 된다.

주차장은 어떻게든 법정 기준만 채우면 되고, 그 공간을 조금이라도 활용하여 테이블이라도 하나 더 두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이 전에는 어느 정도 옳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주차장 자체가 경쟁력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비단 상가만 주차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 주택에서도 주차장은 필수 불가결한 공간이다. 전국 평균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를 넘어선 지 오래 됐으며, 그 중에서도 제주도는 세대별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주차장(차고지)을 확보하여야만 자동차등록이 가능한 차고지증명제가 본격 시행이 된다면, 주차장 확보 여부가 주택을 선택하거나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원희룡 최측근 현광식,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측근인 현광식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

원희룡 제주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현광식(54)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

했다. 앞서 경찰도 제3자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조창윤 전 짚레꽃 대표가 언론보도를 통해 "원희룡 지사가 후보시절인 지난 2014년 당시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요청으로 건설업체로부터 총 275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뒤 이튿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2000페이지 분량)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경찰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의 주거

지와 모 건설업체 대표 고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고, 현광식 전 비서실장을 각각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은 법리 적용이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현 전 비서실장은 건설업자로부터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묵시적 부정할 청탁을 받고 조창윤 전 대표에게 총 9회에 걸쳐 27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전 비서실장 등

피의자들 모두 2750만 원을 교부 및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전 비서실장의 경력(원희룡 국회의원 보좌관, 원희룡 도지사 선거캠프 사무장 등) 및 당시 직위(제주도청 비서실장)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금액(2750 만원)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조창윤 전 대표에 대해서는 "조창윤은 지난 2014년 9월경 제주도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힘을 써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벤트 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길홍 기자]

부하직원 성추행 전 경찰간부 '집유'

회사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귀포경찰서 간부 임모(55, 경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2월 1일, 서귀포시의 한 식당에서 부인 축하를 위한 전체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인 A씨에게 다가가 술을 따라주며 러브샷을 한 후, A씨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쪽 볼에 1회 입맞춤을 했다. 임 씨의 추행은 2차에서도 이어졌고, 결국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회사자리에서 임 씨의 추행을

목격했던 직원들이 법정에서 임 씨의 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모두 경찰공무원이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면전에서 추행 사실을 분명히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직장 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일 뿐 아니라 서귀포 경찰서에서 성희롱 담당과장이었다.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진술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사건 발생 이듬해인 2017년 결국 해임 됐다. [백길홍 기자]

1박에 40만원, 타운하우스서 불법 숙박영업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타운하우스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해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일삼은 건물주가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타운하우스와 아파트에서 숙박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숙박영업을 한 타운하우스 등 총 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주거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

기목적인 일명 '세컨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왔으며, 특히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 영업하는 기업형 숙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하우스 대표 P씨는 서귀포시 소재 본인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의 아파트 2채, 또 다른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1박당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상당의 숙박 요금을 받고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K하우스에서는 주택 소유자 명의로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후 민박업 신고 이후에는 거주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는 소유자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박당 20만 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주민미거주 민박업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6년 간 도피중이던 무사증이탈 알선 총책 달미

부하조직원을 통해 중국인 7명을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킨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중국 현지 알선 총책이 6년 만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중국 현지 알선 총책 J씨(55)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6월 22일 밝혔다. J씨 등 부하조직원 4명은 지난 2012년,

중국인 7명으로부터 각 900만 원씩 받고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킨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국내 총책을 포함한 내외국인 알선책 3명과 중국인 7명 등을 검거했으나 중국 현지 알선 총책인 J씨는 검거하지 못했

다. J씨는 중국에서도 가명을 사용하며 공범들에게도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그러다 올해 2월 J씨와 같은 이름으로 서울 등지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경찰은 4월경 J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2개월 후인

6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J씨를 6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앞으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도외 이탈 사범 및 알선책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체류 및 도외이탈 외국인들에 의해 또 다른 치안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여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송치

제주에서 20대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 김모(4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1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교사 A씨(28 여)의 아파트에서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A씨는 사회적·종교적 멘토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하고 곧바로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복부좌상에 의한 채상과

열 및 복강내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고, 김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피의자는 폭행사실은 시인하고 있지만 현장검증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분노를 표시한 내용을 휴대폰 문자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대신 증거인멸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로부터 오래 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2의 여성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길홍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한 20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주먹으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강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시 소재 전 여자친구인 B씨(27)의 집에

몰래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뒤 강간했다.

제갈창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백길홍 기자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한 20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주먹으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강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제주

시 소재 전 여자친구인 B씨(27)의 집에 몰래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뒤 강간했다.

제갈창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백길홍 기자

올레길에 출몰한 300kg 멧돼지, 추적 끝 사살



▲올레길에 출몰해 올레꾼을 위협했던 멧돼지가 유해조수단의 의해 업종으로 사살됐다.

제주 올레길에 출몰해 올레꾼을 위협했던 멧돼지가 유해조수단의 의해 업종으로 사살됐다. 이 멧돼지는 3년생으로 무게가 무려 300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31분경, 서귀포시 안덕면 오설록 인근 곳자왈 일대에서 멧돼지가 출몰했다

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멧돼지 출몰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6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 이에 경찰은 제주도 유해조수단과 협조해 엽사 2명과 함께 멧돼지 출몰 지역인 오설록 일대 올레길 주변 곳자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엽사 2명은 수색 끝에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곳자왈 숲에 숨어 있던 멧돼지를 발견하고, 안전한 곳으로 유인한 뒤 업종으로 멧돼지를 사살했다.

사살된 멧돼지는 3년생으로 무게가 무려 300kg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멧돼지를 제주시청에 신고 후 폐기 또는 자체 소비(유통 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가 훑쳐 본 40대 '집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훑쳐 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2015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10월 8일 자정쯤 제주시 관덕로에 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몰래 훑쳐봤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백길홍 기자

해수욕장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22분경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수욕장 앞에서 오모(59 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 씨는 인근 다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

성으로, 평소 죽고 싶다는 소리를 주변에 자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오 씨를 인양한 뒤 병원으로 안치했으며, 현재 유가족이 있는 지 여부와 함께 타살 혐의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취업 알선 미끼로 870만 원 챙긴 불법채류자 구속

취업 알선을 미끼로 중국인 피해자 3명으로부터 870만 원을 가로챈 불법채류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불법채류자인 피의자 양모(33, 중국인)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양모(46, 여)씨 등 3명에게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속인 뒤 총 8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올해 3월 7일 온라인상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소개로 국내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 뒤 왕 씨 등 3명을 제주로 무사증 입국시켰다. 피해자 3명은 끝내 취업을 하지 못하자 결국 중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2015년 12월에 입국한 양 씨는 이듬해인 2016년 1월 4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지금까지 불법채류자 신분으로 지내왔다. 경찰은 "최근 제주도에 불법채류자가 급증하면서 취업 알선과 관련한 각종 범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길홍 기자

"아빠가 엄마를 때려요" 출동한 경찰 폭행한 父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운 판사는 공무원집행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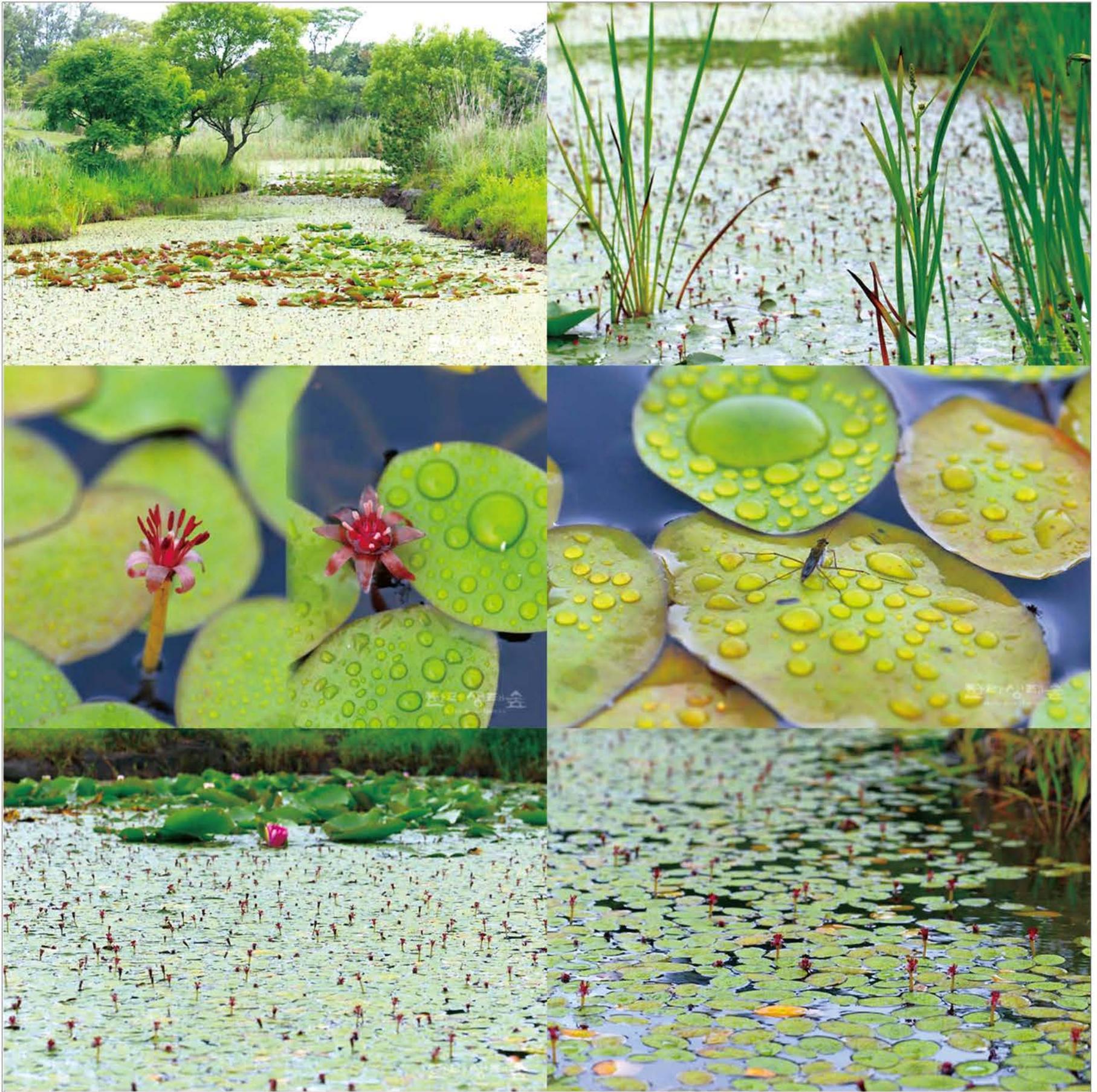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새벽 12시 41분경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에 제주동부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송 씨의 자택으

로 출동, 이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다. A씨의 폭행으로 해당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송재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송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길홍 기자

→ [포토뉴스] 순채꽃 활짝 핀 한라생태숲 수생식물원



News_Jeju

뉴스제주 / 기사제보

광고문의

064- 747-1188~8

→ [펜안허우과] 차영민 역사장편소설 - 70화, 전하의 명



진도에 상륙한 삼별초는 먼저 주변 마을부터 재빠르게 장악하였다. 주민들은 대체로 삼별초의 등장을 놀라워하지 않았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징집의 두려움 때문일까, 예씨 자취를 감추려는 눈치였고 노인들은 누구보다 반겼다. 오랑캐에 무릎 꿇은 고려군보다 끝까지 맞서는 삼별초가 진짜 고려의 정체성이라고 차켜세울 정도였다.

안을 따라서 진도 곳곳이 차근차근 삼별초의 세력권으로 변해갔다. 어떤 곳은 삼별초 군사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알아서 마을의 대표자가 찾아오기도 했다. 금세 용장산성만 빼고 진도 전체가 삼별초의 영향력에 들어오고 말았다. 이상한 것이, 고려군은 해상 전투에서 퇴각한 이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들마저도 텅 비워놓은 상황이었다. 내 눈으로 직접 분명하게 본 건, 고려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마셨던 음식과 심지어 몇몇 무기들도 남겨둔 상황. 어떤 곳은 막사까지도 그대로 남겨둔 채, 급하게 비운 흔적이 역력했다. 분명 수상쩍은 상황이었지만 김통정은 별로 개의치 않은 눈치였다.

“오합지졸들로 어찌 감히 우리를 상대하려 하겠는가!”

오히려 어깨에 힘을 팍 주고 군사들을 더욱더 독려하고 있었다. 물론 척후들이 미리 주변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결과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곳은 삼별초를 완전 쫓아버린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었던가? 해전을 치를 때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군사들이었는데 어떻게 금세 다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건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김통정은 용장산성으로 군사들을 이끌었다. 척후가 가져온 소식으로는, 이곳 역시 텅 비었다고 했으나. 이번만큼은 김통정이 잠시 머뭇거렸다.

“내가 이곳을 정말 잘 알지. 튼튼한 요새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다가 치명적일 수도.”

결국 삼별초는 용장산성을 저 앞에 두

고 따로 진지를 구축하였다. 사방이 탁 트인 평야였지만 흑사라도 모를 고려군의 기습에 더 대응하기 좋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용장산성 진입은 따로 별동대를 꾸리기로 하였는데, 나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말았다.

“누구보다 그대를 믿고 있소이다. 내부를 잘 살펴주시길 바라오.”

김통정은 분명 내게 부탁은 하였지만, 별동대로 차출된 군사들에 대한 권한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 평소 자신과 가까운 부장 하나를 대장으로 삼았고, 그 아래에서 조인 정도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다. 결국 달이 으름나게 떠올랐을 때, 난 별동대와 함께 조용히 용장산성 안으로 진입하였다. 성문은 이미 활짝 열려있던 터라, 따로 돌아서 가지 않아도 되었고, 성벽 곳곳에는 역시 고려군의 깃발과 무기들이 남아 있었지만 군사들은 온데간데 없어보였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성안은 적막함까지 감돌 정도로 조용하였다. 불이 꺼진 민가에서 간간히 인기척은 들렸지만, 직접 확인해보면 그저 이곳에 사는 주민이었다. 산성 가장 안쪽에는 한때 삼별초가 왕족을 앞세워 궁으로 사용했던 건물이 보였다. 규모만 개경과 강화에 있던 것보다는 작았을 뿐. 입구부터 건물 구석구석이 지금도 궁으로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보였다. 오히려 탐라에 있던 성주청보다 더 나아보일 정도였다. 굳게 잠그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보았다. 피와 땀이 오묘하게 섞인 진한 냄새가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도 분명한 건,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이 지냈던 흔적이 역력했다. 특히 건물 한구석에 불을 피우다가 급하게 끈 흔적이 연기로 남아있었다.

“오랑캐보다 못 한 놈들, 다 도망갔구먼!”

별동대장은 내 얘기를 슬쩍 흘려 듣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다. 다른 군사들도 내가 발견한 흔적은 별로 개의치 않은 눈치였다. 까마귀 한 마리가 우리 머리 위에서 빙빙 돌고있을 무렵, 낯선 그림자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잠깐!”

별동대장이 주먹을 재빠르게 들었다. 모두 멈춰섰는데, 하필 마당 한가운데였다. 서 있는 자리에서 눈짓만으로 주변 건물들을 살펴보았다.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나, 공기가 무거워진 것만큼은 확실했다. 별동대장과 군사들이 각

자 무기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품속에 있던 단도를 천천히 꺼내었다. 칼끝이 달빛에 정확히 맞닿을 그때, 순간 시야가 잠시 멈춰버린 바로 그때.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었다.

“기, 기습이다!”

별동대장은 한마디 외침과 함께 목이 화살에 관통되어 그 자리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연이어 군사들 몇몇도 팔다리, 몸통에 화살이 박혀버렸다. 나도 위아래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지 못한 채, 왼쪽 팔이 깊게 긁히고 말았다. 다시 대열을 정비할 새도 없이 온몸을 검은천으로 두른 자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금세 포위까지 하였다.

“살고 싶다면, 칼을 버려라.”

그중 내 목에 칼끝을 겨는 자와 눈이 마주쳤다. 나를 포함해 함께 있던 군사들은 모두 손에서 칼을 내려놓고 말았다. 양팔이 허리 뒤로 꺾인 채, 줄에 묶여 가장 가까이 있는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차가운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낯선 자들의 감시 아래 가만히 자리를 지켰다. 살아남은 별동대원은 나를 포함해서 다섯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그 자리에서 맥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나마 남은 자들은 모두 여기서 차출하여, 특별히 안면도 없는 터였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내 얼굴에만 향했다.

“네놈이 대장이더냐?”

조금 전 내 목에 칼을 겨냈던 자가 앞으로 다가왔다. 쪼그려 앉으면서 복면을 벗었는데, 나도 모르게 뒤로 중심이 흐트러져 주저앉고 말았다. 구면이었다, 탐라에서가 아닌 개경에서 몇 번 인사 정도 했던 자였다. 거기다 더 내 눈을 의심하게 한 건, 나와 함께 묶였던 별동대원들이 갑자기 풀려나는 게 아니던가? 심지어 여기로 끌고 온 자들에게 “고생 많았다”는 얘기도 스스럼없이 나누지 않던가? 곧이어 내 팔을 묶었던 줄도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풀어주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

기선 안심하시지요.”

칼을 겨냈던 손으로 나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던가? 내 기억에 문제가 없다면, 이자는 바로 개경 왕궁에서 봤던 용호군의 장군이였다. 특히 우리 장인어른과 각별하여 한 번씩 처가에서도 얼굴을 보던 그런 사이였다. 동그레진 두 눈은 좀처럼 깜빡일 수조차 없었다. 이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탐라에서 잘못된 줄 알았소이다. 어르신께서도 많이 걱정하셨지 뵈니까?”

그에게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장인어른께서 전하께 고하여 친히 용호군 일부를 진도까지 내려보낸 것. 상황을 지켜보다가 여기서 군사들을 추려 탐라로 내려올 작정이었다고 한다. 삼별초의 움직임은 이미 모두 파악한 눈치였고, 오히려 언제쯤 쳐야 할지 때를 기다리는 듯 싶었다. 이제 난 여기서 이들과 함께 있다가 개경으로 돌아갈 수 있나 싶었지만.

“전하께서 먼저 미안하단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순간,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곧이어 전하의 명이 나왔으나, 아무것도 들고 싶지 않았다. 그건 다름 아닌, 탐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 지금으로선 탐라의 사정을 소상하게 살펴보고 기록까지 해 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조금만 더 고생해주라고 부탁하였다. 도대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뭐란 말인가?

“좀 있다 여길 나서는 순간부터, 우린 다시 적으로서 대할 수밖에 없소이다.”

다시 복면을 쓴 그는, 별동대로 함께 있던 자들과 함께 나를 바깥으로 내보내었다. 조금 전 쓰러진 별동대장 근처까지 동행한 뒤,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유유히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점점 식어가는 시선들을 함께 수습하다가 또 다른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곳엔 다름 아닌 그가 서 있다. 바로 그! (계속)



소설가 차영민. 1989년생. 부산에서 태어나 현재는 제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요망진 제주 청년 푸른 바다와 맞닿은 소박한 마을 '예월'의 한 편의점에 그가 있다. 글쓰기와 밥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작한 '알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글을 쓴다. 네이버 '종이비행기', 소소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알바생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블로거이자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이십대가 되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경영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나 워미로 시작했던 글쓰기가 어느새 그의 삶이 됐다. 지은 책으로는 청소년소설 『그 녀석의 몽타주』와 『효리누나, 혼자음사에 : 제주로 간 젊은 작가의 알바학개론』 등이 있다. 작가 블로그 BLOG.NAVER.COM/CYM8930

The 20th anniversary

제주 삼다수 20주년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순이익 46% 지역사회 환원
(2,100억 원)

제주도민의 공기업 JPDC



먹는샘물 사업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구축
글로벌 품질시스템 강화



신성장 동력사업

도민 주거복지 강화
공익적 개발사업 추진



열린 혁신 경영

사회 공헌활동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18년도 110명 채용예정)

20년 한결같이

수질이 변함 없습니다. | 수위가 같습니다.

제주삼다수는 도내 강수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에서
지하420m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지하수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창의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